

# "Ante-Bellum College"와 "대학 시대" 사이에 발생한 미국 고등교육 혁명의 역사적 인과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한 철 희 (나사렛대학교 부교수)(1-2)

## I. 서 론

1870년대에는 미국 교육사에 신기원이 시작되었다. 대각성운동과 대학부흥(campus revival)에 힘입어 급속히 확장되고 번성하던 18세기 college들은 한 세기 후 광범위한 변화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일대학의 노아 포터(Noah Porter) 총장이 묘사하는 바와 같이 당시 ante-bellum college<sup>1)</sup>들 앞에 놓인 위기는 고등교육의 이념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급박하고도 본질적인 것이었다: "대학교육은 혁명에 의하여 소용돌이치고 있다. . . 과거의 연구와 방법론에 실재하던 결함들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들이 제기되었고,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는 매우 단호하였다"(Veysey, 1965, 1). 남북전쟁 직후의 불과 몇 십 년 동안의 급격한 개혁운동은 오늘 날 대학시대(the era of university)<sup>2)</sup>라고 명명되고 있는바, 이 동안 미국 고등교육의 지도자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 미국대학교들이 생성될 수 있는 이념적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대학시대 이후 새로이 형성된 대학들은 ante-bellum college들과 비교해 볼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결과를 산출하였는바, 모든 교육적 지표들을 기초로 판단할 때 미국 고등교육의 근본적 속성이 변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러한 격동의 한가운데서 보수 혹은 진보의 입장을 취하며 여론을 주도해 나간 지도자들은 본질적으로 기독교교육자들이었다. 그들은 기독교신학과 교육철학적 기초위에서 유럽의 고등교육과 당시 사회의 실용성을 고찰하였으며, 정통신학과 급부상한 신생 교과인 과학과의 조화를 모색하며 건국 후 100년 된 국가의 고등교육 방향을 열어갔다.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주의적 경건을 기초하여 설립되었던 주류대학들이 1860년대 어간에 겪게 된 급격한 교육 개혁 요구의 배경과 사회적 조건형성 요인, 그리고 다양한 급진적 교육과정 개혁에 직면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취한 입장과 결과의 상호 관계를 역사적 인과론의

---

1) 미국 고등교육의 역사에서 "the ante-bellum college"라고 하면 19세기가 시작되는 1800년부터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1860년 사이에 속하는 모든 대학들을 지칭한다(Hofstadter and Metzger, 278). Ante-bellum이라는 어의는 라틴어 *ante bellum*에서 연유하였으며 문자적으로는 '전쟁 이전'이라는 뜻으로 용례상 주로 '미국남북전쟁(1861-65) 이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미국 고등교육의 역사에서 "대학 시대(the era of university)"라고 하면 남북전쟁(1861-1865)이 끝나고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이 시작되기까지의 50년 동안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미국 대학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였다(Roberts & Turner, 2000, front flap). 특히 이 대학 시대 가운데서 변혁의 소용돌이가 극심하였던 1870년대를 통상 the rising of university라고 지칭한다.

견지에서 고찰하였다.

## II. Ante-Bellum College의 배경과 Yale Report of 1828

### 1. Ante-Bellum College의 개략적인 특성

Ante-bellum college는 비교적 단순하던 농경사회의 산물이었다. 이 사회는 정주(定住) 방식의 사회였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행위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믿는 고대적 확실성을 담지한 사회였다(Rudolph, 1990, 221). 19세기 초, 국가 건설을 완성한 미국은 학문적인 면에서 대륙과 구별된 자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개신교신학을 여타의 학문을 통합하는 탁월한 분야로 발전시켰고, 기독교신앙을 도덕적 성품 형성과 사회적 통합의 근간으로 삼았다. 당시의 대학들은 미국 개신교의 지성적 보류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부분적으로는 사회계층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혹은 기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유지되어 왔다.

설립목적은 교회 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들은 명백히 종교적인 교육기관이었다. 1840년대 college의 총장들 중 4/5가 성직자였으며, 주 정부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의 총장들도 2/3가 성직자였다(Marsden, 1994, 81). 대부분의 교수들은 신학을 전공한 성직자들로서 모든 교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만능지식인(generalist)들이었다. 학생들은 매일 드려지는 채플과 주일 교내 예배에 의무적인 참석이 요구되었을 뿐 아니라, 부모의 입장(in loco parentis; in the place of a parent)으로 자신들의 신앙적 품성을 지도하는 교수들에게 복종하여야 하였다.

이 대학들이 점차 변화하는 사회로부터 중대한 변신을 요구받게 되었다. 국부가 축적되어가면서 일상의 편안함이 확대되었고, 미국적인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모험적인 교육정신이 대두되면서 대학은 직접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봉사하여야 하며, 통속적인 미국인들의 관념이나 혹은 실제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져야 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자유 시장경제 안에서 대학들은 점차 서로 간에 경쟁 상대들이 되어 갔다(Marsden, 1994, 99). 이러한 관계 속에서 오랜 전통을 고수해온 ante-bellum college들은 지적인 문제나 대중적인 관심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신생 대학들에 의하여 점차 포위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제적인 필요나 대중적 관심에 대해서는 미국의 고등교육이 지난 225년 동안이나 회피하거나 불확실한 대답을 제시했었을 뿐이었다(Rudolph, 1990, 222). 이처럼 교과 개혁에 대한 요구가 집중되던 시기에 대중적 견해와 상반되게 고전교육에 대한 이상을 가장 명백하게 표현하고 설득한 것이 예일 리포트 1828이다.

예일대학(Yale College)은 ante-bellum college들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들 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또한 가장 큰 대학들 중의 하나였다. 식민지시대에 설립되었으며 국가시대(national ear)에 들어서서는 복음주의 계열의 대학들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대학으로 등장하였다(Marsden, 1994, 82). 대부분의 미국 대학 설립자들이 고전학문과 도덕철학의 후예일 뿐만 아니라 대각성운동의 후예들이었는바, 예일대학의 총장들은 더욱 그러하였다. 더욱이 1802년 봄에 이 대학에서 시작된 campus revival은 계몽주의적 불신앙을 논박하는 티모시 드와이트

(Timothy Dwight)총장의 설교에 힘입어 제2차 대각성운동의 발화점이 되었다(Gabriel, 1958, 71-77). 이 당시의 예일대학과 드와이트 총장에 대한 역사가들의 종합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소재한 예일대학은 미국의 대학설립이 최고조로 증가하던 시기(1800-1860) 동안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학이 된 것이 분명하다. 이 시기에 대학은 20여개에서 180여개로 증가하였고, 대학생들의 증가율은 인구증가율의 4배에 달하였다. 이러한 증가의 핵심적 요인(primary factor)은 이차대각성운동이며, 대학에서의 부흥 운동은 티모시 드와이트 총장을 중심으로 예일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예일은 동부대학들의 선두에 서서 영적으로 각성된 졸업생들을 남부와 서부로 파송하여 대학을 설립하거나 기독교대학의 총장이 되게 하였으며, 따라서 이 당시 예일대학은 "대학들의 어머니(mother of colleges)"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다(Reid, 1990, 1297).

예일은 뉴잉글랜드의 청교도 전통을 중서부 지방에 이식하고 조성하려는 사회적 및 전략적 위치와 연관되어 다음 수 십 년 동안 미국 ante-bellum college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지도적 모델이 되어 왔다.

## 2. 스코틀랜드 상식철학(the Scottish Common Sense)

Ante-bellum college들에서는 고전 교과목이 교과과정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 대학들에서 고전에 대한 강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논거는 당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던 도덕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일맥상통하였다. 고전문학은 인간의 지적인 기능과 도덕적인 기능을 균형있게 발달시키는데 유용한 교과라는 것이 당시 주요 대학 지도자들의 일관된 신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원리는 상식철학을 그 사상적 기초로 하고 있는바, 이는 19세기 미국 개신교신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18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이다.

과거 미국 식민지 교육자들은 대영제국에 지적전통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주변인에 불과하였었다. 18세기 미국 고등교육의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모델은 스코틀랜드의 대학들이었다. 그 이유는 옥스퍼드(Oxford University)와 캠브리지(Cambridge University)가 견지하던 성공회 전통의 신사교육이 침체상태에 있는데 반해서, 애버딘(University of Aberdeen)과 에딘버러(University of Edinburgh)와 같은 대학들은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황금시대를 일구었기 때문이다. 이 대학들은 프란시스 허친슨(Francis Hutcheson), 토마스 리이드(Thomas Reid), 아담 스미스(Adam Smith)와 같은 학자들을 통해 세계 도처에 새로운 지적 르네상스를 전파하였다.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은 우선적으로 대학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바, 이를 가능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조지 마스덴(George M. Marsden)은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모든 진리에 대하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시원성(始原性)을 증명해 내려는 장로교의 학문적 열정이며, 또 하나는 당시 최신의 문화적, 과학적 경향성을 갖춘 온건한 장로교 중도파들(Moderates)이 대학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Marsden, 1994, 59).

미국의 신생 고등교육기관들은 기꺼이 스코틀랜드대학들의 도덕철학을 자신들을 위한 표준으로 설정하였다. 독립전쟁이 끝나갈 무렵 스코틀랜드 철학은 미국 고등교육 교과과정을 통합하는 원리가 되었으며, 전통적으로 최우선적 필수교과이었던 신학과 함께 지배적인 위치를 공

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대학에서 도덕철학이라는 교과명으로 개설된 이 강의는 통칭 상식철학(philosophy of common sense)이라고 알려진 보다 광범위한 스코틀랜드 철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Roberts & Turner, 2000, 11).

상식철학은 일반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각(sense)을 책임성 있게 사용함으로써 말미암아 실재하는 세계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신체적인 감각(physical senses)은 경험적인 노력과 귀납적 추리를 통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반면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적(common)으로 있는 선천적 "도덕적 감각"(moral sense)은 도덕성의 근본적인 원리라는 직관적 지식을 부여해준다고 한다(Reid, 1990, 1061). 주로 토마스 리이드에게서 발원한 이러한 과학적 세계관은 토마스 흄이나 르네 데카르트의 회의주의에 반대하는 전통에서 있다. 이들은 지식의 확실성이 "상식원리"라는 근본적 신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자기 정체성, 실재(reality), 자연의 항속성, 검증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 인과율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감각된 대상은 인간의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의 존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간은 상식(common sense)을 통하여 대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상식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더욱 확고히 증명해 준다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유니테리언에서부터 구파(Old School)장로교인과 제퍼슨주의자까지 모든 주류 개신교 진영이 동의하였다. 과학과 보편성을 최상의 근거로 간주하는 이 철학의 근본원리는 복음적 기독교, 계몽주의 사상, 과학적 발견, 공화주의적 정치원리, 그리고 도덕성 등과 같은 미국 특유의 혁신적 통합으로 발전하였다(Marsden, 1994, 90).

상식철학이 이처럼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된 이유에 대하여 마스덴은 기질적 성향과 역사적 원인을 꼽는다. 즉 미국인 대중들의 사고가 실제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사유 대신 과학적 설명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분리되어 온 대영제국에 대한 뿌리 깊은 경쟁심, 대혁명 이후 프랑스인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불신앙에 대한 혐오감 등으로 인하여, 이 신생 국가는 자신들의 진취적 전망을 정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근거로 스코틀랜드의 건강한 사상체계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Marsden, 1994, 91).

뉴저지대학(the College of New Jersey, 지금의 프린스턴대학교)의 위더스푼(John Witherspoon) 총장에 의하여 가장 탁월하게 소개되어졌던 이 상식철학은 미국 지성사에서 존재하였던 여러 사상들을 종합 및 정리하였으며, 1820년대까지 ante-bellum college들의 중심적 교육사상으로 최고조를 이루었던바, 미국 고등교육에서 견고한 영향력을 확보하였다.

### 3. Yale Report of 1828

1827년 9월 11일, 예일대학의 총장과 교수단은 새로 구성된 연구위원회에게 dead languages 라고 일컬어지던 필수 고전교과를 철폐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정규 대학 교과를 마련하도록 연구 과제를 부여하였다(Yale Report 1828, 298)<sup>3)</sup>. 다음 해, 1828년 9월 9일, 예레미야 데이

3)본 연구는 *American Journal of Science* (1818-1895) full text digital archive에서 제공된 자료 본문을 사용하였다. "Original Papers in Relation to a Course of Liberal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cience and Arts* 15 (January 1829):298.

(Jeremiah Day) 총장 및 교수단은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일 리포트 1828을 작성하고 이를 공식 서명하여 채택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초기에 부과한 연구과제와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종래의 고전 교과와 필요불가결성을 증명하고 이를 공고히 수호하기로 결의한 것이었다.

예레미야 데이 총장이 직접 작성한 리포트의 전반부에는 예일대학에서의 교육 계획과 교양 교육의 속성 및 고전교과에 대한 옹호가 제시되어 있다. 킹슬리(James L. Kingsley) 교수가 주관한 후반부에서는 특별히 대학 교과과정에서 그리스와 라틴의 고전 언어 및 문헌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보고서는 예일대학의 저명한 과학자 벤자민 실리만(Benjamin Silliman)이 창간하고 편집 간행하는 세계적인 과학논문지 미국 과학기술 저널 (American Journal of Science and Arts)에 "교양교육 과정에 관계된 창의적인 논설(Original Papers in relation to a Course of Liberal Education)"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신속하고도 폭넓게 전달되었다. 이 보고서는 당시 대학 교과에 대한 포괄적 통찰을 표명한 교육적 선언으로서, 미국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어간의 전체 미국고등교육의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논문이라고 인정받고 있다(Brubacher & Rudy, 1958, 101).

예일 리포트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당시 예일대학의 교육체계가 불완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수공동체가 어떠한 변화와 개혁에 대하여도 개방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작하였다. 또한 화학, 지질학, 광산학, 정치경제학 등과 같은 새로운 학문들이 옛 고전 교과들에 추가되어 왔음도 주목하였다(Yale Report 1828, 299). 그러나 이 보고서는 대학들이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필요에 자신들을 적합화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대학이 국가의 산업발전의 경향성에 따라 신속히 그리고 보다 적절히 적응하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견에도 반대하였다(Lucas, 2006, 133).

예일 리포트의 전체 기초를 이루는 몇 가지 전제가 있다. 즉 인간은 여러 가지 기능들(human faculties)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지성과 양심이 최상의 기능임을 인정하였다. 이 기능들은 육체의 근력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다. 그런데 다양한 인간 기능의 발달과 훈련에는 필연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들 안에 적절한 품성의 균형을 형성하려고 한다면 문학과 과학에 연계된 각각의 과목들은 조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지적인 문화에서 획득되어질 두 가지 위대한 점은 지성의 훈련(discipline)과 교양(furniture)이다; 이 역량을 확장시키며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Yale Report 1828, 300).

신체의 발달이라는 유추로부터 추론된 이 리포트는 사람의 체격이 최고의 완벽에 이르는 것은 단지 한 가지 통일된 동작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운동을 통하여 획득되어 지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적 기능 역시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 익숙해짐으로서 점차 확장되고 강력해지며 또한 학문 상호 간의 이해에 적응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Yale Report 1828, 300ff). 위원회는 본질적으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 학문분야로 수학, 고대 및 현대 영문학, 논리학, 수사학, 웅변술, 작문, 그리고 물리학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전문학은 균형 잡힌

성품 형성 교육을 위해 핵심적인 교과목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더 나아가 학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과과정 편성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과목(professional studies)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바, 왜냐하면 예일대의 교육목표는 어떤 전문직에 해당하는 것을 특정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에 공통적인 토대를 놓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하였다.

예일 리포트에서 발견되는 시종일관된 정신과 주장은 3가지로 요약된다. 즉 신앙의 교훈적 중요성, 고전교과 훈련의 유익,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르침과 훈련이 요청되는 젊은이들의 완고함과 미숙함이다(Hofstadter & Metzger, 1957, 279). 이와 같은 표명이 교육 현실에서 구현된 결과는 옛 교과과정을 영속화하고 새로운 학문들이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경향성과 경쟁하며 선택교과의 원리를 폐쇄시키려는 노력이었으며, 이러한 예일대학의 일관된 교육철학에 적극 협력한 고등교육기관은 프린스턴대학이었다. 당시 하버드대학이 유니테리언 신학의 지배 아래 선교 열정을 소실해가며 자족적인 고립 분위기를 조장하던 변두리 성향을 보이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이 두 대학은 급속한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당대의 주도적인 대학으로 인지되어 가고 있었다(Rudolph, 1990, 131).

### III. 교육개혁의 사회적 환경 요인

#### 1. 잭슨 민주주의(Jacksonian Democracy)

예일 리포트 1828이 발표되고 전국에 회람되던 해인 1828년에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은 미합중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었다. 당시 미국에는 급속한 성장에 따른 불평등과 특권층의 양산이 국가 발전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었다(도로시 로스, 2008, 81-83). 앤드류 잭슨은 이러한 대중 민주주의적 정서를 정치적 배경으로 하고 경제 귀족층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연합세력에 직접적으로 호소함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잭슨 민주주의가 표방한 것은 엘리트의 특권적 지위에 대한 저항이며, 그들의 불평등하고 인위적이며 비분질적인 혜택을 박탈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려는 독특한 민주주의 이론이었다. 이는 보통사람들에게 비교적 광범위하게 설득되었으며 특히 지역적으로 소외되었던 서부와 남부의 신흥계급에게서 크게 환영받았다. 잭슨이 가져온 사회 변혁을 요약한다면, 귀족적 기준의 퇴조, 기업 의욕의 방출, 미개척된 서부의 정복, 신흥 사업자 계층의 성장 등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이윤과 효율성을 창출하게 되었다. 1830년대 이후부터 미국 사회는 점차 엄정한 실용성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학사회가 강조하여 왔던 지적 호기심이나 탁월한 사회적 가치라고 여기던 전통 개념과 상충 및 경쟁하게 되었다(Hofstadter and Metzger, 1957, 285).

잭슨의 정책은 예일 리포트 1828이 표방한 엘리트적 아카데미즘의 이상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고, 장차 전통적 미국대학의 이념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새로운 경향성을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각인시켜 주었다. 즉 대학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미국에게 불충하게 봉사하는 것이라는 미국적 신념이 성장하게 되었다(Rudolph, 1990, 203). 당시의 대학들은 잭슨주의의 경향에 민감하였으나, 이러한 사회적 경향성을 대학

의 학문 전통과 오랜 교육목표에 반영하고 수용하기 어렵다는 난관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 잭슨 정책의 효과가 최고조에 이른 기간은 대학에 대한 정부의 행정 지원이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하였다(Rudolph, 1990, 212). 잭슨주의자들은 특권층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대학들에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반대하였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입학생의 숫자는 잭슨시대 이래 반세기 이상 정체되어 있었다(Veysey, 1965, 4).

비록 전통적 미국 대학들(colleges)이 지식보다는 경건을 선호하였고 학식보다는 인격 형성에 우선권을 두었었지만, 대학들은 "부자의 대학(rich-man's college)"이라는 비난 섞인 별명에 대하여 특별히 취약하였다. 프린스턴대학에는 남부의 부유한 대농장주 귀족의 자제들이 주된 생활양식을 형성하였으며, 하버드대학은 보스턴에서 온 품위 있는 젊은이들에 의하여 대학 문화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귀족적인 경향성은 동부의 주류대학들에서부터 인디애나, 조지아, 심지어는 켄터키의 트랜실베이니아대학(Transylvania University)에 이르기까지 대동소이하었다. 실제로 대학들은 가난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주장했던 것보다는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 고등교육기관들은 가난한 학생들로 하여금 기계기술, 가내수공업, 상업, 해운업, 광산채굴, 철도건설업과 같은 직업을 권고하였다. 그리고 성직자, 변호사, 의사 등과 같은 전통적 전문직에 대해서는 염두에도 두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소명으로 교직을 희망하는 것조차 분수에 맞지 않은 선택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을 방관하였다. 가난한 학생들이 교육 받기 원하는 욕구에 대하여 대중적 적개심과 질투가 대학 내부에서 한동안 편만하였다(Rudolph, 1990, 205-207).

## 2. 독일의 낭만주의와 대학의 이념

대학은 서유럽에서 생성된 교육기관이다. 대서양 반대편의 이 대학들은 유럽식 교육 양식과 문화 행위를 세계 다른 쪽에 전파하였고, 이는 19세기 후반에 미국 고등교육을 변모시킨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미국에서도 독자적인 사상과 새롭게 태동된 국가문화를 기반으로 발전된 학문 분야가 있었지만, 소수의 창조적 지식인들은 유럽에 버금가는 지성을 동경하여 왔다. 그들은 정통 복음주의적 경건으로부터 자신들을 이격시키고 잭슨주의적 야만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유럽의 과학과 교육의 발전에 대하여 수용적이 되어 갔는데, 이 유럽의 문화는 신생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다 조야한 경향성들에 상응하는 평형력을 제공하였다(Veysey, 1965, 2). 대륙에서 생성되어 아직도 변성하고 있는 이 고등교육 기관은 사회적 이상주의, 개인적 야심, 그리고 신생국가의 풍부한 추동력을 만족시켜 줄 수 있었다.

19세기 내내 독일의 대학들은 미국 대학들의 대학원(graduate schools)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Marsden, 1994, 104). 독일에서는 이미 15세기와 16세기부터 10여개의 중세형 대학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였으나, 독일대학들의 학문성이 세계의 큰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810년에 베를린대학교(Humboldt University of Berlin)가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이 대학은 프리시아의 국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의 적극적 지원에 따라 교육개혁가이며 교육부장관이던 빌헬름 폰 훔볼트(Karl Wilhelm von Humboldt)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총체적 국민 교육을 주장하였던 철학자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가 초대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당시 독일 대학들이 탁월한 학문성을 견지하게 된 배경에는 독일의 낭만주의와 철학적 관념

론이 있었다. 독일의 낭만주의는 기계론적 자연관에 기초한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에 반대하여 감정과 개성을 존중하고 세계를 절대자의 자기표현으로 이해하였으며, 자연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유기체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근대적 연구중심대학을 촉진시킨 중요한 학문 분야가 문헌학(philology)이었다.

문헌학은 민족들의 문화적 소산을 보여주는 제 분야들, 즉 예술, 사상, 문학, 신화, 풍습, 언어, 지리 등의 포괄적 인문학 분야를 보편적으로 연구하여 고대적 삶의 보편성을 창조적으로 재현하는 분야로서 당시 과학 분야에서 최고의 학문이었다. 이로 보건대 당시 독일 대학의 과학적 탐구의 이상은 냉철한 추상적 분석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독일 낭만주의와 철학적 관념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지성적 탐구는 고정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발달의 견지에서 보다 잘 이해한다고 보았다(Marsden, 1994, 104). 헤겔 철학에서처럼 고대인들의 문헌을 통해서 인간 정신의 고귀한 본질을 발견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자기 형성(Bildung)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품성 형성이라는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교육의 이상이 독일 과학 즉 'Wissenschaft'의 목표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Wissen'이라는 광범위한 인문학적 배경에서 발원하였다.

베를린대학교는 기존 교의나 철학적 신조에 얽매이지 않는 비판적 사고 및 진리탐구의 자유, 그리고 통일된 국가의 시민정신을 위한 자기형성이라는 국민국가적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건립 초기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석학들을 교수로 청빙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학의 이념은 전체 독일대학들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교육적 사상으로 인정되었다(Knowles, 1978, 2034).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 진정한 정신적 발전과 인류의 진보를 지향하였던 독일낭만주의와 철학적 관념론에 근거한 교육사상은, 베를린대학교 초대 총장이었으며 당시 대학이론가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피히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대학은 각 세대가 최고도의 지적 교육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기관이다. . .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속해서 신성한 명료성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 이제 만약 대학이 그와 같다고 한다면, 대학은 인류가 소유하고 있는 가장 거룩한 곳(the most holy thing)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교육이 대학에 주어진 이래, 지금까지 인류 앞에 출현하였던 신성한 모든 것(everything divine), 그리고 변화무쌍한 모든 것들을 훨씬 초월하여 간단없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온 인류의 본래적 속성을 보전하고 전수한다; 따라서 대학은 우리 인류의 불멸성의 가시적인 현현이다(Marsden, 1994, 105).

미국에서 독일식 교육 모델이 사회의 관심을 끌게 된 계기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교육 개혁가였던 빅터 쿠쟁(Victor Cousin)이 쓴 "프러시아에서의 대중 교육 상황에 대한 보고서"의 영역본이 1835년경에 출판되면서 부터이다. 찰스 트윙(Charles F. Thwing)은 1928년에 출간한 미국 대학과 독일대학 백년사 (The American and The German University: One Hundred Years of History)라는 저서에서 독일대학이 19세기 초부터 미국대학에 끼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미국의 교육, 특히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독일인들의 공헌은 지대하였으



며, 그 공헌은 오늘날의 미국 고등교육에 결정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독일 대학이 미국대학에 끼친 지난 100여 년간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독일 대학은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는 점. 둘째, 독일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독일인 교수들이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봉직했다는 점. 셋째, 독일 대학의 교육 방법, 그 형태 및 조건이 미국 대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 등이다(Thwing, 2003, 20).

하버드대학의 미국문학사 교수였던 조오지 티크너(George Ticknor)는 19세기 초 독일 괴팅겐대학에 유학하여 큰 도전을 받았다. 미국 대학 교과과정 개혁에 대한 티크너의 공헌은 지대하였다. 브라운대학교의 4대 총장이었던 프란시스 웨이랜드가 이사회에 제안했던 선택과목제도의 초기형태를 하버드대학교의 찰스 엘리엇 총장이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는데, 티크너는 이 교과 개혁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Thwing, 2003, 47).

#### IV. 교육개혁의 기독교 선구자들

에일리포트 1828은 ante-bellum college들이 실시하여왔던 영국대학 전통의 인문교육을 고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대변한 것으로 당시 지식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후대 교육사학자들에 의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미국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충족시킬 실용적 자연 과학의 도입이 이 보고서의 영향으로 남북전쟁이 종결되던 1860년대 중후반까지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동시대에도 고전교과 편중 현상에 대한 조심스러운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과학과 신기술에 의하여 급속히 변해가는 사회구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체계에 대한 논의가 고등교육기관 외곽에서부터 전개 되었다. 랠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1837년 하버드 대학에서 행한 "미국의 학자(The American Scholar)"이라는 제목의 유명한 연설에서 "우리는 너무 오랜 동안 유럽의 품위 있는 시적 영감들(the courtly muses of Europe)에 귀를 기울여왔다"고 탄식하였다(Lucas, 2006, 132).

##### 1. 교육개혁의 진조적 현상

19세기 초반부터 수학, 자연철학, 식물학, 화학 등에 추가되어 유사 교과목인 동물학, 지질학, 그리고 광물학 등이 은연중에 대학 교과에 추가되게 되었다. 당시의 이 과목들은 주로 계절 학기에 분교에서 개설되었으며 단지 일과성에 불과한 학사운영이었다. 그러나 소수의 창조적인 지식인들은 이 과학이라는 교과목이 고전 연구에는 결여되어 있는 광범위한 실용적 경향성을 가진 학문으로 멀지 않아 미국사회에서 큰 관심을 얻게 될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1802년 예일대학 Campus Revival에서 급격한 회심을 체험하였던 화학 및 자연사 교수인 벤자민 실리만은(Gabriel, 1958, 71-72) 광물학과 지질학을 강의할 때 직접적인 과학 실험을 병행하여 과학 교육의 관심을 폭넓게 증진시켰다. 그의 아들이며 저명한 화학자인 벤자민 실리만 2세, 그리고 그의 사위이며 광물학의 개척자인 제임스 다나(James Dwight Dana)가 주도하였던 과학탐구에 대한 선구적인 노력은 예일 리포트 1828을 창출하였던 예일대학을 미국 과학탐구의 수원지로 만들었다(Rudolph, 1990, 223-224).

예일대학은 1847년에 과학과 공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셰필드과학대학(Sheffield Scientific School)을 설립하여 인문학과 통합 교육체계의 전환을 시도하였다(Rudolph, 1990, 231-232). 하버드대학 역시 1847년 로렌스과학대학(Lawrence Scientific School)을 설립하여 과학과 기술에 대한 첫 공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버드의 에드워드 에버레트(Edward Everett)총장은 순수화학과 응용화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에벤 홀스포트(Eben N. Horsford) 교수를 임용하였으며, 동물학과 지질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스위스의 저명한 자연과학자 루이스 아가시즈(Louis Agassiz) 교수를 영입하였다(Schlesinger, 2005, 102-104). 예일과 하버드가 설립한 두 과학교육기관은 19세기 중엽 미국의 과학과 기술교육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Brubacher & Rudy, 1958, 88). 그러나 이 두 과학대학에서 실시한 과학교과목들은 오랜 인문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던 전통적 교육기관에서 고전학과 동일한 비중의 학문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공감을 획득하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이 두 대학은 전통적 학위인 문학사(BA)의 위치가 침탈되지 못하도록 별도의 이학사학위를 마련하였으며, 입학조건에서도 차별을 두었고 과학기술의 수학연한도 3년으로 축소하였다. 심지어 예일대학에서는 채플에서 셰필드과학대학 학생들이 정규 인문과정 학생들의 곁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윌리엄스대학의 프레데릭 루돌프 교수는 이 두 대학이 과학전공의 학생들을 이등시민(second-class citizens)으로 간주하였다고 평가한다(Rudolph, 1990, 232).

예일 리포트 1828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평가와 ante-bellum colleges들의 교육적 모색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브라운대학교의 총장 프란시스 웨이랜드와 미시간대학교의 초대 총장 헨리 태팬에 의하여 표면화되었다.

## 2. 대학개혁의 선구자 프란시스 웨이랜드(Francis Wayland)

뉴잉글랜드 침례교회가 설립한 브라운대학의 웨이랜드 총장(재임 1827-1855)은 앤도버신학교(Andover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하고, 당시 대학교육의 선구자였던 뉴욕 유니온대학(Union College)의 엘리팔렛 노트 총장(Eliphalet Nott)에게서 사사를 받았다. 노트는 신파(New School) 장로교 목사로 60여 년 총장을 역임하면서 과학을 대체과목으로 제시한 병행학사학위과정(parallel courses of study)을 개발한 교육개혁자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전통 고전과목과 과학기술과목을 균형 있게 수강하도록 하였다(Marsden, 1994, 102). 웨이랜드는 이에 영향을 받아 실제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을 지향하는 교과과정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는 원숙한 교육행정가의 관점에서 브라운대학을 포함한 뉴잉글랜드 대학들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미국 대학체계의 기초를 재점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고등교육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장로교회와 회중교회 지도자들과 긴밀한 연대를 취하면서 자신의 교육적 통찰을 학술지와 보고서들에 발표함으로써 19세기 중반 미국대학 개혁론을 주도하였다.

### 1) 신앙을 기초한 교과 구성 강조

웨이랜드는 당시 고등교육에 대한 방대한 개혁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던 세기 중

반에 과학과 신앙의 결합을 주창하였다. 모든 진리는 창조주로부터 연유하였으며 물리적 법칙 뿐 아니라 도덕률과 우주의 생성 원리도 창조주에 기인한 인과율의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적 추론으로부터 개인의 도덕성과 시장경제의 원리, 그리고 국가의 정치경제학의 원리를 추론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의 대학 개혁도 이러한 신앙적 과학법칙에 기초하였다. 즉 시장-보상적 접근에 상응하는 원리를 대학운영의 리더십 면에 적용하여, 과거 대부분 미국 대학을 설립하였던 개신교지도자와 성직자가 교육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미국이 고등교육의 특정 구조를 차용해 왔던 영국대학의 교육체계를 그 기초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Marsden, 1994, 102). 웨일랜드의 저서 정치경제학(Elements of Political Economy)은 당시 미국대학에서 필독서였는바, 일본 게이오대학의 설립자 후쿠자와 유키치 개혁사상의 근간을 형성하게 하였다(Sutton, 1995, 74-75). 그는 이 책에서 덕성의 함양이 없는 지식의 증가나 지성문명은 단지 욕구를 자극할 뿐이며 중국에는 자신을 배태한 사회 구조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신앙만이 이러한 예견된 파국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임을 제시하였다. 개인과 사회에 대한 권리를 사랑함이 없으면 국가가 견고히 지속될 수 없으며, 신앙적 동기에 기초하지 않은 개인과 사회의 권리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 2) 실용성을 강조한 교과과정 요구

그는 뉴잉글랜드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난관은 유럽의 고전적 권위와 선행 관례에 대한 과중한 강조에 있음을 발견하였다. 현존하는 교육 체계는 새로운 검토와 개발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시대를 위하여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전제 하였다. 더욱이 대학 교육과정은 대학이 임의로 그 범위를 한정해서는 안되며, 대학 지지자들의 특정한 현실적 필요를 고려하여 재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웨일랜드는 기본적으로 전문직의 훈련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방대한 대륙의 개발가능성,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 자기신뢰와 야망이 존재하고 민주적 국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독립을 쟁취하려고 열중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고전적 학과목들은 무의미하다"(Rudolph, 1990, 238)고 하였다. 그는 문기를 "약간의 수학과 자연철학을 곁들인 버질과 호레이스, 호메로스, 그리고 데모스테네스 등이 이 대륙에 묻혀있는 막대한 자원들 개발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유용한가?"라고 하였다(Lucas, 2006, 137).

이러한 다양한 필요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대학들은 단지 지성만을 자극하는 고전과목들 뿐 아니라 사실과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과목들을 강조하는 보다 포괄적인 범위의 교과를 제공해야 한다. 고등 교육의 정당한 목표는 정신적 훈련뿐 만아니라 사실 자체에 대한 지식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균형 잡힌 교과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과목들이 고전학문과 병행하여 배정되어야 한다.

1828년의 예일 리포트는 단지 지성의 훈련에 유익하다는 근거 위에서 고전 교과를 옹호하였으나, 웨일랜드는 궁극적으로 미국 대학의 교육은 보다 중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따라서 최소한 보다 현실적인 현금 가치(more tangible cash valu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Marsden, 1994, 103). 소수의 미국인들만이 재학하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college들로는 국가를 물질적 번영과 도덕적 지성적 진보라는 황금시대로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웨이랜드는 당시의 목가적 ante-bellum college들이 곧 종합대학교로 재편성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서 작용할 중심적 동인들을 예견하고 있었다. 더욱이 빠르게 다양해지는 경제 구조로 보아 고등교육의 우선적 기능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업기술을 위해 봉사하는 것임을 간파하였고 이러한 그의 통찰은 미국적 실용주의 정서와 부합하게 되었다.

### 3) 브라운대학교 이사회 보고서: 실제적인 교과과정에 대한 제안

정신 훈련의 도구로서의 고전학문에 대한 해묵은 주장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언어 훈련에 충당되어 왔었으나 그 교육적 효능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제 고전학은 더 이상 자신들의 특권을 향유하지 말아야 하며, 전통과 권위의 비중에 의하여 지지받지 말아야 하고, 교과과정의 다른 모든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그 과목 자체가 지닌 가치의 우수성에 근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들로부터 산출된 구체적인 권장들은 1850년의 브라운대학교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Report to the Corporation of Brown University)안에서 발견된다.

그가 모든 고전과목의 유익을 유지하면서도 특히 급부상하는 중산층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에 요청한 대학교육체계 개편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1)학사 수업연한을 4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고, 학생이 원하는 학습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를 부여, (2)과목 시간 할당에 있어서 유용성을 기준한 새로운 강좌 당 시간 산정체계 마련, (3)완전한 자유 교과 선택 체계, (4)한 과목을 선택하게 하고 졸업할 때까지 방해받지 않고 그 안에서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일관된 전공 탐구도 허용하는 방안 등이다(Rudolph, 1990, 238).

간결하게 요약하면 학생들이 한 번에 이수하도록 요구되는 과목의 수가 줄어들었다. 이는 철저한 훈련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여러 과목을 피상적으로 공부하는 대신 적은 수의 과목을 충분히 익히도록 설계하였다. 이때에는 완전한 과목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적게 혹은 많이 선택할 수 있으며, 대학과정 전체를 마치는데 시간제한이 없다. 필수 학점을 이수하거나 시험을 패스하는데 있어서 그 수학 내용이나 이수 기간에 관계없이 학생은 학사학위를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일련의 혁신적 조치를 통해서 웨이랜드는 브라운대학과 미국의 대학들로 하여금 그 후원자들이 개척시기에 당면한 현대적 필요들을 실제적으로 충족시켜 주며, 당시대의 경제 및 사회 발전과 보조를 맞추는 혁신적 개혁안을 추진하였다.

### 3. 대학 개혁의 세례 요한, 헨리 태판(Henry P. Tappan)

미국 대학사(大學史)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일컬어지는 헨리 태판은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의 초대 총장을 역임하였고, 뉴잉글랜드의 전통적 칼리지 시대를 넘어 미국 고등교육의 대학교(university)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언하였던 교육 개혁자였다(Marsden, 1994, 103). 태판도 웨이랜드 처럼 유니온 대학(Union College)에서 엘리팔레트 노

트 총장에게서 배우고 어번신학교(Auburn Theological Seminary)를 졸업한 후, 독일에서 유학하였다.

그는 당시 신대륙의 사상가들처럼 상식철학과 스코틀랜드 윌리엄 해밀턴 경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았으나 이를 독일의 관념론 특히 칸트의 철학과 융합하여 독창적인 사상을 형성하였다. 당시 전통적 ante-bellum college들은 1850년대에 이르러 점증하는 시대적 위협 앞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폭넓은 사상가로 명성을 가지고 있던 태펜은 이 대학들에게 고도의 학문성을 견지한 진정한 대학의 이상을 제시하였으며, 미시간대학교를 위대한 대학으로 만들려는 야심찬 개혁을 추진하였다(Rudolph, 1990, 233).

### 1) 독일대학 이념의 직접적 구현 추구

브라운대학의 빈틈없는 웨일랜드 총장에게 부족한 것 중에 태판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대륙의 낭만적 관념론(romantic idealism)이었다(Marsden, 1994, 104). 그의 통찰에 의하면 다음 세대의 새로운 미국 대학들은 낭만주의 시대에 발전하게 될 것이고, 미래 대학의 설립자들은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미국을 위대한 학자들의 나라로 만들려는 역사 발전론적 이상을 가지게 될 것이었다. 태펜은 프리시아의 국민교육 모델의 탁월성을 점차 확산하고 있었던바, 이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의 전 과정이 국가의 관리 아래 세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통합 체계였다. 태펜은 독일 대학이 “글자 그대로(literal)” 미국 고등교육을 위한 모형을 되기에 충분하다고 성급히 선언하였고(Veysey, 1965, 10) 미시간에서 이러한 이상을 재생산해보려고 시도하였다. 태펜은 당시 경제 발전이 학문의 발전에 가져온 역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학문과 대학에 대한 냉담한 태도에 대하여 비판하였다(Lucas, 2006, 136). 또한 미국의 대학이 자신들에 대하여 회의적이던 대중을 향하여 진정한 학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Rudolph, 1990, 234).

태펜의 미시간대학은 고도의 학문성을 견지하려고 하는 한편 대중적 필요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실무교육중심주의에의 동조자는 아니지만 그는 이 대학의 졸업생들을 미시간 주 내의 공립학교들에 파송하여 주의 전체 교육 체계를 완성시키려고 하였다. 태판은 취임 전에 진정한 대학이란 “과도한 상업주의 정신에 대항하여, 그리고 미국 사회에 편만한 궤변적 속임수와 대중선동주의의 이기심에 대항하여 강력한 대응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Rudolph, 1990, 234).

태펜은 대학교육과 신앙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신앙적이어야 하며, 프리시아의 모델처럼 개신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웨일랜드와는 달리 과학적 진리와 성서적 진리는 두 개의 상이한 영역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따라서 성경이나 신학적 교리 어느 것도 철학적 또는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Marsden, 1994, 108).

### 2)진보적 교육관

태판은 또한 요나단 에드워드와는 달리 자연적 인간의 능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낙관적이

었으며, 인간의 자유는 그의 사상에서 중심적 주제였다(Marsden, 1994, 106). 그에 의하면 자유는 미국 대학의 위대한 특성이며 따라서 학업에 대한 자극은 위에서 부여된 권위로부터가 아니라 각 학생들의 자연적 관심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이며, 절대적인 선택의 자유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했다(Schmidt, 1930, 165). 따라서 태팬의 대학에서는 강요가 아닌 자기 주도성, 간접적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독립적인 탐구 등이 주요 특징을 이루었다. 이러한 동기들과 방법들은 대학교(university)를 ante-bellum college와 구별 짓는 기준이 되었다. 훈련, 규칙, 법규 그리고 도덕적인 속박 등은 중심적인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부차적인 것(incident)인바 그 중심적인 목표란 진리탐구(the discovery of truth)라는 것이다(Schmidt, 1930, 165).

태팬은 코넬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될 앤드류 화이트(Andrew D. White)와 그의 후임으로 코넬대학의 총장을 역임하고 후에 위스콘신대학교의 총장이 될 찰스 아담스(Charles Kendall Adams)를 포함하여 다수의 잠재력 있는 학자들을 미시간대 교수로 청빙하였다. 그는 1858년 미시간대학 평의회에게 MA와 MS학위 과정을 제안하였으며(Rudolph, 1990, 234), 유럽의 대학 체계를 따라 철학, 문학, 약학, 그리고 법학 등의 전공을 각 학부로 독립시킴으로 미시간대학을 유럽대학에 버금가는 진정한 의미의 대학교로 만들려고 하였다(Schmidt, 1930, 165). 또한 과거의 과목들과 새로운 과목들을 동일한 교과과정에 함께 개설하는 것은 실제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과학의 방대한 확장과 함께 학과목도 방대하게 확장되었다. . . 우리는 단지 4년 과정 안에 엄청난 숫자의 학과목을 우겨넣어 왔을 뿐이며, 그 효과는 참담"했었다고 판단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태팬의 진단에 동의하였다(Lucas, 2006, 132).

그러나 태팬은 미시간에서 그의 대학의 이상을 진전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바, 미시간은 1850년대에는 독일 대학에 대해서는 다소 적박한 환경이었다. 독일 프러시아대학교 체제들을 선호하는 그의 주장들과 미국 동부의 이국적이고 귀족적 풍모는 미시간의 여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극하였고 점차적으로 대중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1863년 헨리 태팬은 미시간대학의 총장직에서 해임되었는바, 이는 반지성주의와 실천적인 것을 선호하는 대중들의 편견,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미국 대학에 대한 미숙한 꿈에 의하여 희생된 해임이었다(Rudolph, 1990, 234). 비록 태팬 자신은 그의 이상이 미시간의 황무지에서 실현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일관성 있는 원리들에 의하여 초석이 놓여진 미시간 대학이 미국 서부에서는 첫 번째 진정한 대학으로서의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명성을 확립하게 하였다.

## V. 결 론

18세기의 미국 college들은 번창하는 교육기관이었다. 남북전쟁 이전에 거의 모든 대학을 휩쓴 대각성운동과 campus revival의 영향으로 대학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세기 초의 ante-bellum college들은, 그리스와 라틴 문헌 및 수학에 접하도록 강제함으로 말미암아 젊은 이들의 지적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정신적 훈련"(mental discipline)이라는 기치아래, 그들에게 경건과 품성적인 역량을 길러 줄 수 있는 4년 학제를 제공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학문적 정통에 대하여 처음으로 제기된 공격은 명시적인 대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된 고전적 품격을 지닌 Yale Report of 1828의 영향력이 소진하여 갈 무렵에는 이 옛 체제가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College의 행정가들은 급속히 성장하는 미국의 조건들을 평가하고 대처하는 일에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그들은 당시 비지성적이며 열정에 휩싸인 국가 안에서 극소수의 지식인 그룹을 이루고 있으면서 대중의 관심을 통속적인 방법으로 끌어내기를 원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특권계급과 미국적 자본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저항이 전개되고 있던 당시에도 대학 내에서는 부유한 학생들 사이에 호사스러운 클럽 활동(Greek-letter fraternity movement)이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독교적 평등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려던 지도자들의 노력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학의 곤경은 보다 실체적인 유형인 자산공급의 결여라는 더 근접 요소에 기인하였다. Ante-bellum college들은 근본적으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자선에 의지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이 대학들의 자아 혁신을 위한 초기적 노력이 실패한 것은 당시 사용 가능하였던 잉여 자본을 대학의 유지 자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지도자들을 지쳐있었으며, 학교가 존속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불과 몇 년 후 예일과 프린스턴에서 자신들을 대체하게 될 보다 젊은 보수주의자들보다 덜 모험적이었다.

미국에서 생성된 지성계의 신진 리더십은 열정적으로 국가의 진흥을 꿈꾸며 유럽에 버금가는 지성을 동경하였다. 이들 탁월한 기독교지도자들은 college의 신앙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교육현장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하여 지도력을 발휘하였다. 헨리 P. 태판은 1852년에 미시간대학교의 총장에 취임하면서 독일 대학은 미국 고등교육을 위한 "글자 그대로" 모형을 차용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성급히 개혁을 서둘러 결국 보수적 지역 성직자들에 의하여 배척되었다. 1840년대에 브라운대학교의 프란시스 웨이랜드 총장은 유럽의 경향성을 배격하고 보다 유연한 개혁을 시도하였으며, 각 전공별로 더 세분화된 교과과정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그의 선구자적 통찰력은 역설적으로 대학시대 하버드의 찰스 엘리오트 총장에 의하여 차용되었으며, 그의 40년 재임 동안의 착실한 실천을 통해 결국은 대학을 세속화시키는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Ante-bellum college의 마지막 시기인 50년대에도 여전히 성직자들이 대학 운영의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불과 다음 10년 동안 그들은 대학의 중요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교육개혁가들이 이처럼 신속히 영향력을 장악하였다는 것은 당시 전개되던 변화의 깊이와 속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대학 이사들은 여전히 1/3이 성직자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그들 역시 불확실한 방식을 지속하기 보다는 위험을 무릅쓰는 교육적 실험을 선호하게 되었다. 성직자로 구성된 현존하던 이사들을 신임 총장 선출 표결에서 신앙적인 문제들 보다는 교육적인 문제에 최우선적인 기준을 삼게 되었다.

Ante-bellum college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50년대와 1960년대 중반에 큰 분수령을 이루었다. Laurence Veysey, John S. Brubacher, Willis Rudy, Richard Hofstadter, Walter Metzger, Frederick Rudolph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ante-bellum college들의 고전적 품격과 효능 및 시대적응 역량에 대하여 부정적 판단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이후 교과과정 논쟁들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기독교 인문학과 Yale Report of 1828에 구현된 르네상스형 인간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과과정과 관련된 논쟁의 역사에

대해서는 카노칸(W. B. Carnochan)의 *The Battleground of the Curriculum: Liberal Education and American Experience*, 그리고 ante-bellum college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가이저(Roger L. Geiger)의 *The American College in the Nineteenth Century*가 후속 연구를 위하여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Ross, D. (2008).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 1 & 2. (백창재, 정병기 역). 서울: 나남.
- Noll, M. A. (1996).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이승학 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 Thwing, C. F. (2003). 대학과 학문: 독일대학이 미국대학에 준 영향. (이형행 역). 서울: 한국 학술정보(주).
- Brubacher, J. S. & Rudy, W. (1958). Higher Education in Transition: A History of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1636-1956.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Burtchaell, J. T. (1998). The Dying of the Light: The Disengagement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From Their Christian Churche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Carnochan, W. B. (1993). The Battleground of the Curriculum: Liberal Education and American Experience. Stand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abriel, R. H. (1958). Religion and Learning at Yale: The Church of Christ in the College and University, 1757-195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uttek, G. L. (1991). An Historical Introduction to American Education (2nd. ed.). Prospect Height, Ill.: Waveland Press.
- Hart, D. G. (1999). The University Gets Religion: Religious Studies in American Higher Educ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ofstadter R. & Metzger W. P. (1957). The Development of Academic Freedom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emeny, P. C. (1998). Princeton in the Nation's Service: Religious Ideals and Educational Practice, 1868-192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nowles, A. S. (1978).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Vol. 5.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Lucas, C. J. (2006). American Higher Education: A Histo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arsden. G. M. (1994). The Soul of the American University: From Protestant Establishment to Established Nonbelief.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sden, G. M., & Longfield, B. J. (1992). The Secularization of the Acade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rison, S. E. (2001). Three Centuries of Harvard 1636-1936 (13th ed.). Cambridge, Mas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Reid, D. G. ed. (1990). Dictionary of Christianity in America.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 Ringenberg, W. C. (2006). The Christian College: A History of Protestant Higher Education in America.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 Roberts, J. H. & Turner, J. (2000). The Sacred & the Secular Univers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dolph, F. (1990). The American College & University: A History. Athens, GA: Th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Schlesinger, A. (2005). VERITAS: Harvard College and the American Experience. Chicago: Ivan R. Dee. Publisher.
- Schmidt, G. P. (1930). The Old Time College President. New York: AMS Press.
- Slosson, E. E. (2005). Great American University.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Sutton, J. (1995) Wayland's Way Brown Alumni Monthly, Vol. 95, No. 8, 74-75.
- Thelin, J. R. (2004). A History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Veysey, L. R. (1965). The Emergence of the American Universit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bstract

A Christian Study on the Historical Causality Developed  
on the Eve of the Epoch of Renovation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Between Ante–Bellum College and the Era of University

Churl–Hee Hahn (Associate Professor, Korea Nazarene University)

The American college had been a thriving institu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Through the Great Awakening and campus revival, some colleges chose to promote revivalism and an expansionist Christianity. Yale and Princeton emerged as the influential colleges during the America's greatest boom period of college founding(1800-1860). This study use "ante-bellum" to denote all the colleges in the period between 1800 and 1860, and "the era of university" the period of 50 years between the Civil War and World War I.

The history of American higher education is the story of interaction between transplanted European concepts and the American environment. The liberal arts college was derived from the English system, and the common sense philosophy was transmitted by the graduates of Scottish universities such as Aberdeen and Edinburgh.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emphasis on classical curricula continued to dominate American colleges. They tried to make sharpen the young men's faculties through enforced contact with Greek and Latin grammar and mathematics. The Yale Report of 1828 emphasized that such a training and exercise of mental faculties was the proper function of higher education. During the Jacksonian movement, the commonalities found that the established colleges continued to neglect the practical needs of people and eventually the existing liberal arts colleges unresponsive to their opportunities. The Yale Report of 1828 was an example of the attitude that blocked curricular change.

The nineteenth-century German universities had a great influence on American higher education between the Civil War and World war I. Henry P. Tappan, the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Michigan, had prematurely declared that the German institutions could serve as 'literal' models for American higher education. Francis Wayland at Brown University had emulated foreign ideas less directly but also tended toward a flexible, more departmentalized curriculum.

When attacks upon academic orthodoxy had required an articulated answer, the ante-bellum college had entered a decadence. The time around 1870 seemed to mark an epoch of educational history in the United States. The college education are convulsed by a revolution within those days.

The very nature of the higher learning in the United States had been critically transformed. The university system took root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several decades after 1865. The American university took shape and reached its present state of definitio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Key words: American higher education, ante-bellum college, Yale Report of 1828, Henry P. Tappan, Francis Wayland,

**한철희 교수** 현재 나사렛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부교수. 서울신학대학교(B.A., M.Div.), 미국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MACE, Ph.D.). 주요 저서 및 논문: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번역), 기독교교육과 한국문화: 문화를 알면 교육이 보인다(공저), 기독교교육의 삶과 삶(공저), 기독교교육개론(공저), Exploring Christian Education(공저) 등 다수.